

[P1 - 28]

기혼 여성의 취업여부가 본인과 가족의 영양소 섭취 및 식습관 양상에 미치는 영향 - 2001국민건강·영양조사 자료를 중심으로

이정원*, 조한석¹충남대학교 소비자생활정보학과, 통계학과¹

Effects of housewives' employment on the nutrient intake and dietary habit of themselves and their families.

Joung-Won Lee, Han-Seok Cho¹,Department of Consumers' Life Information, Department of Statistics¹, Chungnam National University, Daejeon, Korea

최근 기혼 여성의 취업률은 매우 두드러져 1990년대 초 미혼 여성의 취업률을 앞질렀다. 기혼 여성의 취업은 가정의 식생활 관리 역할에 제약을 주게 되어, 그 역할이 가족구성원들로 분산되거나 외식 및 인스턴트식품의 이용 증가로 이어지는 등 가족 구성원들의 식생활 양상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. 이에 2001 국민건강·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취업한 기혼여성 자신과 가족들의 식생활 양상을 전업주부인 경우와 비교 분석하여 영양관리 및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. 2001 국민건강·영양조사의 식품섭취조사와 식생활조사 자료 중에서, 기혼의 20세 이상인 여자로서 직업 활동분야가 주부(가사) 또는 무직인 경우를 전업주부(56.2%)로, 모름과 비해당을 제외한 나머지 직업 활동분야에 속한 경우를 취업주부(43.8%)로 분류하였다. 가정의 경제수준은 가구 월소득이 2001년도 최저생계비의 100% 미만이면 '하', 최저생계비의 100-199%는 '중', 200-299%는 '상', 300%이상은 '최상'으로 나누었다. 분석결과를 보면, 기혼여성 본인의 영양소 섭취상태를 연령, 가구소득 및 학력을 통제했을 때 대부분 영양소의 섭취와 평균영양소적정비(MAR), 영양소질적지수(INQ)가 1미만인 영양소의 수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취업과 전업간 차이가 없었다. 다만 에너지, 지방 및 비타민 A 섭취가 취업한 경우 전업주부보다 많았으며 비타민 C 섭취는 반대로 전업주부에서 높았다. 가족의 경우 연령, 성별, 가구소득 및 학력을 통제했을 때, 단백질, 칼슘, 철분, 티아민, 리보플라빈, 비타민C 등 대부분 영양소 섭취의 RDA%와 MAR이 전업주부 가족에서 취업주부 가족에 비해 높았고 INQ<1영양소 수는 반대였다. 이러한 차이는 소득수준이 '중'일 때 강하게 나타났고 '최상'과 '상'에서는 약했다. 소득수준이 '하'인 가족의 경우는 많은 영양소 섭취와 MAR, INQ<1 영양소 개수는 취업과 전업 주부간 차이가 없었으나 에너지, 칼슘 및 철분 섭취가 오히려 취업주부 가족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. 또한 기혼여성이 취업한 경우 특히 20세 미만의 연령군, 즉 자녀의 에너지 및 영양소 섭취 상태가 불량하였다. 특히 취업주부의 1-2세와 3-6세 자녀의 칼슘 섭취량이 각각 RDA의 77.2%(전업주부 123.9%), 65.0%(전업주부 78.2%)로서 매우 낮은 것은 유의해야 할 점이다.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지방, 리보플라빈 RDA%, 음용수 섭취가 전업주부 가정일 때 취업주부 가정에서 보다 양호하였으나 나머지 영양소 섭취는 차이가 없었다. 식습관도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여 아침과 저녁의 결식율이 취업 주부 가족에서 전업 주부 가족에 비해 더 높았다. 간식 횟수는 차이가 없었으나 간식 종류는 달라서 과자/스낵, 라면, 음료수가

■ 포스터 발표

취업주부 가족에서 많고 과일/주스는 전업주부 가족에서 많았다. 외식횟수는 취업주부 가족에서 잦았고, 영양제, 건강보조식품 등의 섭취도 전업주부 가족에서 보다 높았다. 영아(2세 이하)의 모유 수유 비율과 수유기간은 전업주부에서 높았으며(전업주부 71.2%, 20.2개월, 취업주부 58.5%, 15.3개월). 모유 수유를 하지 않는 이유가 취업주부는 직장 때문이 58.8%나 되었다. 보충식 시작시기, 6-9개월 보충식 형태, 생우유공급시기, 영양제 준 경험 등에서 주부취업여부에 따른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. 결론적으로 기혼 여성의 취업이 특히 소득수준이 '중'인 가정에서 20세 미만 자녀의 영양소 섭취 및 식생활 습관엔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. 따라서 여성 근로자들의 이러한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경제활동 지원과 기업의 숙련된 인력확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직장 내 영유아보육시설의 양적·질적 확보, 초중고등학생 영양지도의 학교 전담 등에 관한 정부 차원의 영양정책이 요구된다.